

## 제 4 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공모 당선 작품소개

이 글은 당협회가 '88년도 우유 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 4 회 전국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응모자 5,759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화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佳作 5편, 입선작 10편, 장려상 30편 등 총 48편이 당선되어 지난 호에 입선 3편을 게재하였으며 이번 호에는 입선작과 장려상 각 2편을 소개하고, 잔여 장려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본지에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註)



연  
선

## 까까중 내 동생

제주도 효돈 국민학교  
6의 1 오 헤 리

— 학교갔다 오면 숙제 마치는대로 유아원에 가서 형진이를 데리고 머리 자르러 갔다 오너라. 엄마.....—

엄마께서는 아침에 바나나 농장에 가시면서 메도와 돈을 책상위에 놓고 가셨다.

집에와서 나는 얼른 숙제를 마친다음 유아원에 가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생 형진이를 데리고 미장원에 갔다. 미자원 아줌마가 내 동생을 보시고는 “여자 얼굴같이 참 곱구나. 살도 포동 포동 우유를 잘 먹어서 그런가?” 하시면서 내 동생의 머

리를 예쁘게 잘라 주셨다.

머리를 자르니 내 동생이 더욱 의젓해 보였다.

집에와서 동생이 어린이 만화를 보겠다고 하기에 TV를 켜주고 나는 내방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큰 누나야! 누나 도시락 가방 어디 두었어?”

“부엌에 있겠지.”

나는 건성으로 대답하고 공부를 계속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뜨르륵, 뜨르륵」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으려고 안방에 가보니 이게 웬일인가?

조금전에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왔는데, 내 동생이 자기 머리를 한 움큼, 두 움큼 앞의 머리를 싹둑 싹둑 자르고는 거울을 보고 웃지 않으니!

하도 기가 막혔다.

우리반 애가 숙제 범위를 묻는 전화에도 어떻게 대답해 줬는지 모른다.

동생 얼굴만 보면서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금방 웃음이 나올 것 같으면서도 동생을 잘 돌보지 못해서 엄마한테 내가 욕들을 생각을 하니 동생을 막 때려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나는

“누나랑 미장원가서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왔는데 왜 너대로 또 잘랐지?”

“누나! 왜 오늘은 학교에서 우유를 안 갖고 왔어? 미장원 아줌마도 나보고 우유를 많이 먹어서 예쁘다고 했는데 누나만 학교에서 다 먹고 왔지?”

‘맙소사. 그것과 무슨 상관이란! 내가 학교만 갔다오면 도시락 가방을 뒤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구나.’

집에서도 우유를 두 개씩 받지만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내 동생이 귀여워 학교에서 받는 우유를 어찌다 집에 갖고 오면 좋아라하는 내 동생이었다.

저녁 무렵, 엄마 아빠께서 바나나 농장에서 돌아오셨다.

나는 꾸중들을 것이 겁이나 얼른 이 사실들을 말 씀드렸다.

아빠는 동생 머리를 보시고 어이가 없어 크게 웃

으셨다.

“형진의 모습이 안 웃고는 못 버틸거요.”

엄마 아빠께서 웃으시는 것을 보고 나는 조금 안심했다.

엄마는 동생을 보고, “야-! 머리 참 예쁘게 잘 잘랐네. 미장원 아줌마가 형진이 머리를 안 예쁘게 잘라서 형진이대로 또 잘랐구나.” 하는 소리에 동생이 “아니 누나가 학교에서 우유도 안 갖고 오니가 기분이 나빠서 잘랐어.”하는 것이었다.

“이 먹보야! 우유를 하루 두개씩 먹으면 됐지. 또 누나가 학교에서 받는 것까지 내가 먹으려고? 그럼, 누나는 우유를 못 먹고 매일 가지고 와서 너를 쥐야겠구나. 애들아! 다음부터는 우유 갖고 오지 말고 꼭 학교에서 먹고 오너라. 동생 버릇이 나빠져서 안되겠다. 먹는 것도 좋지만 너무 욕심부리면 안되지.”

이번엔 엄마께서 이발소 아저씨와 의논한 끝에 동생 머리를 가까중으로 하고 오셨다.

그 머리 형태로는 이렇게 밖에는 별도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까까중 뽀뽀머리 형진이!」하면서 놀려도 거울을 보면서 빙그레 웃는 내 동생이 귀엽기만 했다.

‘내일은 우유를 학교에서 먹지않고 갖고와서 엄마몰래 동생을 쥐야지.’

저녁을 먹은 다음 냉장고에 냉동시켰던 딸기를 꺼내 우유를 흠뻑 붓고 온 식구가 맛있게 먹었다.

“나 이젠 나대로 머리 안자르젠.” 식구들이 또 한바탕 웃었다.

“응! 그래, 오늘밤 오줌이나 쉬하지 말아라. 제발 부탁이다.”

엄마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밤에 형진이는 자기 이불에 오줌을 누었다.

형진이는 좀 미안하긴 한가보다. 엄마 눈치를 살피다가 “엄마! 이젠 딸기애다 우유넣고 안해 줄래요?”

“딸기우유하긴 하는데 우리 식구중에 딱 한사람만 빼고 해먹자.”

동생은 아직 다섯살이 채 못됐지만 숫자도 다 읽을 줄 아는 영리한 동생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라는 걸 금방 알아 차렸다.

“엄마! 나 이제는 머리도 안 자르고 이불에 오  
춤도 안 높게요. 그러니 우유 많이 주세요.”

응. 그래라. 이젠 우유 안 준다고 너대로 자를  
머리도 없고 오줌이야 자연 현상이니까.” 하시면서  
엄마는 우리를 보고 빙그레 웃으셨다.

내동생 형진이 「까까머리, 오줌싸개」이 다음에  
커다란 우유 회사의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릴 때의 「빽빽머리, 까까중」이 생각나  
겠지.

인 선

## 고마운 우유

인천 시흥국민학교

1의 1 노 지 은

연휴를 맞아 우리가족은 낚시 여행을 갔다 왔습  
니다.

‘빵빵’ 소리내며 달리는 차도 보이지 않고, 높은  
건물도 없이 강물엔 고깃배가 떠 다니고 하늘엔 구  
름 한점 없이 어디 가는지 모르는 비행기가 높이  
날고 있는 그런 곳으로 갔습니다.

삼촌이랑 엄마랑 동생이랑 강가에 묶어논 고깃배  
위에서 잡아온 붕어를 구경을 하며, 낚시대 끝에  
붕어 한마리를 매달아 잡아 당겨도 보며, 낚시 흥  
내를 내는 것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를 구워주셨습니다. 우리집 식구는  
모두 먹는 시간에는 용감한 먹보가 됩니다.

그래선지 우리집 식구는 모두 돼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내 동생은 ‘꿀돼지’ 나는 예쁜 ‘꽃  
돼지’랍니다. 우리 식사 때는 언제나 물대신 우유  
를 먹고 있습니다. 우유를 먹어야 튼튼해지고 머리  
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 할 수 있게 된다고 엄마 아  
빠는 늘 말씀하시거든요. 까치도 먹고 싶은지 ‘까  
악 까악’하며 날아다닙니다. ‘까치는 무엇을 먹고  
크는 걸까’ 난 어렸을 적에 우유를 먹고 컸는데  
지금도 우유먹기라면 남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  
습니다. 우유를 많이 먹어선지 난 키가 큰 편입니  
다.

우리 집안에 우유를 잘 먹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외숙모입니다. 외숙모는 세새시 때부터 우유  
를 큰 통으로 한통씩 드십니다. 우유를 많이 드시고  
내 외사촌 동생 슬이를 낳으셨는데 슬이는 우유를  
먹고 자라선지 얼굴이 보름달 빵 만큼이나 포동 포  
동하고, 살결도 아주 예쁩니다. 슬이가 우유통을  
두 손에 꼭 쥐고 발을 흔들면서 쪽쪽 소리가 나도록  
빨아먹는 모습은 참 귀엽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  
우유를 먹고 난 모습은 너무 우습습니다. 왜냐면 꼭  
입가에 하얀 수염이 그려지기 때문이거든요.

우유를 먹고나면 할아버지 수염을 거울에 비춰보  
며 우리는 한참씩 웃곤 합니다.

우리 외할머니택엔 아기 고양이인 배가 고파서  
매일 울고 있었는데 불쌍해 보이는 아기 고양이한  
테 이모는 우유를 접시에 부어줍니다. 엄마 고양이  
대신 고양이를 잘 보살피 주니 아기 고양이는 우유  
를 많이 먹고 무럭 무럭 자랍니다.

우유는 우리 슬이도 예쁘게 자라게 해주고 아기  
고양이도 살려내서 엄마 고양이가 되게하고 내 키  
도 쑥쑥 자라게 하니 여간 고마운 음식이 아닙니다.

엄마는 식사가 끝난 다음 꼭 우유를 주십니다.  
아빠는 낚시를 계속하시고 우리는 들뜬에서 신나게  
먹어대며 물장난도 하고 송사리도 잡아 병에 담았  
습니다.

“엄마 우리 이 송사리도 우유먹이면서 집에서 키

위도 돼요?”

엄마는 웃으면서 안된다고 하십니다.

‘왜 송사리는 우유를 못 먹을까?’

‘즐거운 낚시 여행이 끝나 집에 가면 시원한 우

유를 한통 마셔야지.’

한 낮에 햇볕이 뜨거우니 더욱 생각이 납니다.

난 우유를 많이 먹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 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습니다.

장려상

## 동생과 우유

포항 동부국민학교

4의 6 김 유 진

지난 일요일 오후였다.

“엄마, 엄마!” 밖에 놀러나갔던 동생이 혈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마루에서 참외를 먹고있던 식구들이 모두 깜짝놀라 동생을 쳐다보았다. 어디에서 흙장난을 했는지 손과 얼굴이 새까맣다.

“얼른 세수부터 해라.”

어머니가 나무라셨다.

“엄마, 나 오늘부터 우유 안먹을래요.”

동생은 어머니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엉뚱한 말을 했다.

“무슨 말이나? 우유를 안 먹다니…….”

함께 참외를 잡수시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궁금하다는 듯 물으셨다.

“우유 자꾸 먹으면 소가 된대요.”

“뭘, 소가 된다고?”

“하하하. ‘옴머’하고 우는 황소 말이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굴을 마주 보고 소리내어 웃으셨다.

“바보야, 우유 먹는데 왜 소가 되니? 호호호.”

나도 우스워서 막 웃었다.

“실없는 소리말고 어서 씻고 와서 참외나 먹어라.”

“정말이에요. 진짜 소가 된대요. 우유는 소젖이라고 그래요.”

“그래, 씻고 나오너라. 이야기한번 들어보자.”

아버지가 무엇을 생각하셨는지 빙그레 웃으면서 혼자 고개를 끄덕이셨다.

동생은 ‘푸푸’ 급하게 세수를 하더니, 금방 마루로 나왔다.

“경식이 형아가 그랬어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요새 아이들은 전부 소젖을 먹어서 소처럼 뽀이 나고, 사람말을 잘 안 듣는다고요.”

“뭘? 소처럼 뽀이나? 하하하.”

아버지가 소리를 내어 웃으셨다. 어머니와 나도 함께 웃었다. 한참 뒤에 아버지께서 차근차근 말씀하셨다.

“……아마, 경식이 선생님께서 아이들 때문에 무척 속이 상하셨던 모양이구나. 그렇지만 우유를 먹는다고 사람이 어찌 소가 되겠니? 우유 속에는 여러가지 좋은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우유를 많이 먹으면 소처럼 튼튼하게 된단다.”

“그러면 진짜 소가 되는 건 아니어요?”

“그렇고말고, 정인아도 누나처럼 건강해 지려면 우유를 많이 먹어야 돼.……유진아, 냉장고에 가서 우유 하나 내 오너라…….”

“나 안 먹어요.”

동생이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럼 내가 먹을게요.”

내가 얼른 냉장고에서 우유 한 통을 꺼내어서 나

왔다.

“안돼, 정인이 주어야.”

아버지께서 나무라는 얼굴을 하셨다.

동생은 할 수 없는지 억지로 우유를 받아서는 그래도 겁이 나는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훌쩍훌쩍 마셨다.

“어, 정인이 머리에 뿔났다.”

내가 큰 소리로 말했다.

“씨.”

동생이 눈을 흘기면서 그래도 겁이 나는지 왼손으로 머리를 만졌다.

“하하하”

“호호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웃으셨다. 그래서야 동생도 입가에 허영게 우유를 묻힌 채 씩 웃었다.

장려상

# 나의 건강과 우유

충남 공남국민학교  
3의 2 신 길 자

치과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한 어린이가 이를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팠나 봅니다.

의사선생님이 이를 때우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과자, 사탕, 초코릿, 아이스크림같은 것을 먹은후에 이를 닦아라. 또, 그런 음식을 많이 먹지 말아라. 그런 것은 먹기는 좋지만 건강을 해친단다. 차라리 우유를 많이 먹도록 하여라. 우유는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영양이 많은 식품이란다.”

이가 아파 치료를 받으러 간 나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생활을 반성해 보았습니다.

엄마, 아빠께서는 학교에서 주는 우유를 먹으라

고 하시는데 나는 우유를 먹기 싫다고 하며 아이스크림만 사 먹은 일이 생각났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어린이가 치료를 받고 난 후 내 차례가 되어 의사선생님 앞에 앉으니 선생님께서는 “너도 단 것을 많이 먹었구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들으시고는 “그것 보아라. 엄마가 하는 말을 듣고 우유를 먹었으면 그런 말씀 듣지 않았을 것 아니니?” 하시었습니다.

이는 치료받는 동안에 몹시 아팠지만 아프다고 소리를 내지 못하고 돌아온 나는 왜 엄마의 말씀은 듣지 않았나 생각하며 이제부터는 우유를 많이 먹어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우유마셔 금메달 다져지는 체력부국 !